

녹색성장, 2030년 후 성과 가시화

STEPI, 장기과제로 인식 ... 재생에너지 기업육성에 시장창출 필요

최대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적어도 2030년 이후 2050-2100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.

3월23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이 아주대 에너지·기후변화연구소와 함께 2009년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, 녹색성장이 장기과제라는 응답이 71.9%로 가장 높았고, 중기과제(24.0%), 단기과제(4.2%)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.

특히, 녹색성장이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50년이 39.1%로 가장 높았고 2100년(17.4%), 2030년(14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녹색성장의 시기별 목표로 단기(2015년)는 산업의 오염배출 저감, 중기(2030년)는 녹색생활, 장기(2050년)는 녹색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됐다.

실현 수단은 단기·중기는 정책적 견인과 과학기술 혁신이, 장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변화 및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됐다.

아울러 장기적 추진에서 핵심요소와 측면을 비교·분석한 결과 개도국보다 선진국, 개인적 소유보다 공동이용,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, 현재를 중시하는 국내총생산(GDP) 지표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·생태·경제 지표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전문가들은 녹색성장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과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며, 녹색성장의 사상적 근원이 서양보다는 동양에 좀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보고서는 “녹색성장이 사회적이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변화 추동의 근거가 될 것이며, 녹색성장이 적어도 2030년 이후 실현되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”며 “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도입 단계이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녹색성장 전망에 대한 조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23>